

한국 근대시와 금강산

박 태 일*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금강산시의 표현과 정서 |
| 2. 금강산시와 그 창작 동인 | 5. 마무리 |
| 3. 비로봉을 바라보는 세 눈길 | [붙임] 금강산시 죽보기 |

1. 들머리

문학과 지리학은 얼핏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여겨진다. 문학이 허구적인 창작물인데 견주어, 지리학은 엄밀한 자연학문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리학이라는 학문도 땅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다루는 담론이라는 점에서 문학과 이어진 데가 적지 않다. 실재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재세계에 대한 한 은유일 뿐인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점이 뚜렷해진다. 게다가 지리학의 여러 방법 가운데서도 사람의 장소 경험이나 경관에 대한 주관적 측면을 다루는 데 앞장서는 인간주의 지리학에서는 지리학의 글쓰기가 모름지기 문학적인 질을 지녀야 한다(Tuan, Yi Fu, 1978 : 194)는 생각에 이르고 있다

문학은 특정 장소나 땅 위에서 이루지는 사람의 나날살이와 그로 말미암은 마음의 작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리학과 멀지 않은 셈이다. 향토소설이니 장

*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시를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문학에서 장소 경험, 또는 장소 상상력은 본질적이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장소 경험이 본질적인 경험이며, 장소가 사람에게 정체감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나 지역성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문학은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한 체험이나 이미지, 공공의 장소감이나 그것에 대한 통·공시적 감각을 담아낼 뿐 아니라, 거기다 새로운 뜻을 덧붙이기도 한다. 지리학적 상상력, 곧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이야말로 문학 창작이나 연구에 필수 영역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문학과 지리학 사이의 연관을 따지는 문학지리학이 제 몫을 다해 왔다. 문학지리학은 크게 말해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해설로서,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우리 학계에 문학지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는 이은숙(1992)은 지리학 쪽에서 문학을 이용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었다. 객관적 이용과 주관적 이용이 그것이다.¹⁾ 그 가운데서도 연구의 초점이 지리학적 사실에 놓인 객관적 방법보다 문학에 초점이 놓인 주관적 방법은 오늘날 문학 연구에 쓸모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 근대사에서 장소 상상력은 그 의의가 각별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대 왜로제국주의의 공간 침탈과 나날살이의 식민화에 따른 장소 지배와 예속, 그리고 그와 맞물린 힘겨운 대거리라는 문제를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은 공간의 생산과 재편성을 빌어 그 힘을 키운다. 따라서 뜻 있는 친밀 장소, 삶의 중심 영역을 잃어버린 채, 획일화된 식민자의 공간을 떠도는 노예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전형이었다. 이런 속에서 시인들이 힘겹게 마련한 장소 이미지나 장소에 대한 상상은 거대한 제국주의의 폭력 공간과 그 지배에 대한 주요한 대응일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단순한 시의 배경이 아니라, 공간적 실천이라는 쪽에서 우리 근대사에 나타나는 금강산에 대한 장소 상상력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금강산이야말로 예로부터 배달겨레 구성원들에게 가장 빼어난 절경으로서 알려져

1) 문학작품을 지리학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자료로 삼는다거나, 지역 복원의 자료로 이용하는 일, 또는 작품을 현장 지리교육의 도구로 이끌어 쓰는 일들이 문학에 대한 객관적 이용이다. 이와 달리 특정한 환경이나 경관에 대한 체험이나 이미지를 작품을 빌어 밝히거나, 특정 장소의 장소감에 대한 통·공시적 해명, 장소가 의미를 띄게 되는 과정을 따지는 일들은 주관적 이용에 든다.

왔을 뿐 아니라, 중요한 문학적 원천 가운데 한 곳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남북한 경제 교류의 한 모습으로 금강산이 나날살이 속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금강산과 그로 말미암은 체험이 새로운 뜻으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2. 금강산시와 그 창작 동인

우리나라 땅은 어디라 할 것 없이 아름답고 경관이 빼어나다. 그 가운데서도 금강산이야말로 앞자리로 올려 세울 만한 절경으로 일찍부터 이름이 드높았던 곳이다. 백두산에서 두류산에 이르는 길고도 웅장한 백두대간의 북쪽에 치우쳐 자리한 금강산은 비로봉(1639m)을 주봉으로 삼는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1000m를 넘는 봉우리들만 해도 열 셋에, 백을 넘어서는 높낮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크작은 수십의 폭포에다 소와 물줄기가 어울린 탓에 금강산은 골짜기가 깊고 가파른 절벽지형을 이루었다.

금강산을 두고 봉우리가 일만 이천이요, 그 품에 안긴 절집이 일백팔에 백탑과 만 폭포, 아홉룡, 만물이 있다고 일컬어 온 옛사람들의 말이 거짓이 아닌 셈이다. 그렇듯 아름답고도 다양한 지형에 어울리게 금강산은 그 일컫는 이름도 여럿이다. 금강·봉래·풍악·상악·개골이 그들인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금강이 불교 쪽 이름이라면, 봉래는 도교에 연을 대고 있는 이름이다. 행정 쪽으로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과 통천군 그리고 회양군에 걸쳐 있으며, 지역은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 그리고 해금강으로 나뉜다.²⁾

남아 있는 유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 우리 겨레가 살자리를 튼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였다(전영율과 여럿, 1989 ; 46). 그러니 금강산 지역의 역사지리를 따져 내리는 것만도 큰 일거리가 될지하다. 뛰어난 경관으로 말미암아 금강산은 일찍부터 뱉 수 없는 탐승·풍문의 자리였던 까닭에 술한 옛이야기와 노래, 시

2) 금강산은 동서로 40km, 남북으로 60km에 넓이가 530여km²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아우른다. 원산에서는 108km 떨어진 곳에 있다. 백두대간 분수령 서쪽 회양군에 들어 있는 지역을 내금강이라 하고, 분수령 동쪽 고성군에 든 지역을 외금강, 고성군 해안선 쪽과 통천 쪽 바다에 있는 경승을 해금강이라 한다.

와 가사, 기행문학과 그림의 산실이 되어 왔다. 금강산문학이나 금강산그림³⁾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한 양식으로 따로 떼어 다루어야 할 정도다.

이 자리에서 문제 삼을 근대시기와 관련해서 금강산은 왜로(倭虜)제국주의에 의한 수탈로부터 뗄 수 없는 장소라는 점을 눈여겨볼 일이다. 왜로들은 경술국치 뒤 금강산 지역을 저들 땅으로 빼앗아 외금강에서 중석을 캐어내고, 숲을 마구잡이로 베어내어 금강산을 망가뜨렸다. 게다가 서울과 원산을 오가는 철길, 이른바 경원선 도중인 철원에서부터 탄감리까지 금강산전철선을 만들어 왜인들을 실어 날랐다. 온정리·내강리 둘레로 여관과 요리점을 만들고 금강산을 돈벌이 유흥 장소로 바꾸어⁴⁾ 지배와 수탈의 즐거움을 한껏 누렸다.⁵⁾

금강산은 왜로들의 관광자본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의 앞자리로 다시 한 번 나서게 되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새삼스럽게 거래 구성원들의 가슴을 쳐대기 시작한 것이다. 예외로 돌릴 만한 별종들을 적혀두고 금강산은 여전히 예사 사람들의 나날살이에서 먼 곳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나라잃은시기 35년 동안 조선시기와 다름없이 주요한 문학적 관습으로 되풀이 되어온 근대의 금강산 탐승 경험과 장소 상상력⁶⁾에 대해 조심스러운 눈길을

-
- 3) 조선시기 한문학, 특히 한시에서 드러나는 금강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승묵(1998), 심경호(1998)에서 한 차례 다루어 큰 흐름을 알게 했다. 금강산 전체 경관을 한 폭에 담은 금강산그림에 대해서는 박은숙(1997)에서 주요 쟁점들을 다 다루고 있어 도움 받을 수 있다.
 - 4) 금강산전철선은 이른바 금강산전기주식회사에서 1919년에 만든 것으로, 금강산 탐승객 실어 나르는 일을 주로 맡았다. 1927년 현재 철원에서 금화, 금성, 도창과 같은 여러 읍의 여덟 역을 거치면서 탄감리까지 하루 여섯 차례 오갔으며, 값은 1원 85전이었다. 가등김태랑역음(1927 ; 38)과 조선총독부철도국(1929 ; 174)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른바 개밭을 내세운 금강산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조광』(1938, 3월호)에서 이극로, 정인섭 등의 글을 빌어 문제 제기와 토론이 있었다.
 - 5) 이에 따라 왜인들은 금강산을 내세운 관광상품을 마련했다. 금강산 술꽃가루로 빚었다는 이른바 금강이(옛)니, 금강전병, 금강만두와 같은 과자나 자잘한 먹물거리, 금강산 사집첩에서부터 금강산과 관련된 조선의 한시들을 묶어내 파는 일일까지 나아갔다(成田鎮內 엮음, 1925).
 - 6) 이 시기 금강산 탐승 경험을 다루고 있는 줄글 가운데서 주요하다 여겨지는 것들만 들면 아래와 같다. 낱책으로는 이광수(1924)의 『金剛山遊記』(시문사), 최남선(1930)의 『금강예찬』(한성도서주식회사)이 있고, 짧은 글로는 고유섭(1931, 1934)의 <의사금강유기>('신홍', 12월호, 신홍사)와 <금강산의 野鷄>('신동아', 35호, 신동아사), 김윤경의 <금강산 탐승 향도기>('신동아', 8월호, 신동아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근대시에서 금강산시⁷⁾는 1950년대 경인동란기 어름에서 그 모습을 감춘다.⁸⁾ 그 뒤부터 다시 풍문과 상상의 산으로 물러서게 되어 금강산을 다룬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나라잃은시기 35년과 1945년 율유광복을 거쳐 1950년 경인동란 앞까지에 이르는 시기로 못을 박아 그 동안에 펴낸 시집과 잡지, 그리고 신문들을 살핀 결과 금강산시를 298편 찾을 수 있었다.⁹⁾ 적지 않은 양

-
- 사), 변영만(1936)의 <나의 금강산>(『신동아』 8월호, 신동아사), 이석훈(1935)의 <금강산과 나>(『중앙』 7월호, 중앙사), 이은상(1930)의 <金剛影>(『신생』 10월호, 신생사), 한설야(1939)의 <金剛山遊記>(『조선문학』 4월호, 조선문학사), 이기영(1941)의 <금강산과 나>(『춘추』 11월호, 춘추사)를 들 수 있겠다.
- 7) 이 글에서 금강산시란 몸소 금강산 탐승 경험을 하였거나 금강산을 상상 속에서 다루어낸 시를 뜻한다. 이들은 흔히 금강산이나 그와 관련된 유적·옛사람의 이름, 경물, 경관 등을 시의 제목으로 끌어다 쓰는 까닭에, 그들이 금강산시임을 제목이 쉬 알려주는 특징을 지닌다.
- 8) 1950년 이후 발표된 금강산시는 현재까지 32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을 시인 별로 나누어보면 유치환(1951)이 2편, 이은상(1954)이 1편, 조애영(1958)이 19편, 장호강(1964)이 1편, 김해강(1968)이 8편, 그리고 송하선(1970)이 1편이다. 그 가운데서 조애영의 작품은 '금강산 기행시'라는 이름 아래 올려진 연작시조로 1950년 이전에 써두었다가 그 뒤 시집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해강의 작품 또한 1950년 이전에 써어져 잡지나 신문에 발표까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데, 발표지면을 찾을 수 없어 시집에 실린 시점을 그대로 1950년 이후 작품으로 잡는다.
- 9) 나라잃은시기와 광복기 동안에 나온 창작시집은 엮은책을 포함해 200명을 훨씬 넘는 시인들이 낸 320종 남짓으로 짐작된다. 그 가운데서 글쓴이가 살필 수 있었던 것은 230종 정도였다. 90종 남짓한 시집을 살필 수 없었는데, 금강산시를 남긴 시인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중요한 작품을 빠뜨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신문의 경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중외일보 등을 살폈다. 교지에 실린 금강산시 경우는 임선묵(198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조만을 떼어 간추린 책이어서 자유시 쪽 금강산시가 빠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1차 자료들을 살핀 결과 298편을 찾아낼 수 있었다(글 끝에 죽보기로 붙여 두었다). 이들이 실린 곳은 시집에 156편, 교지에 95편, 잡지에 14편, 신문에 33편이었다. 이광수의 경우, 시집에 실린 21편 말고도 수필집 『금강산유기』의 본문 속에 시조를 중심으로 69편을 읊조리고 있으나, 제목을 따로 붙여 놓고 있지 않은 까닭에 완결된 작품으로 볼 수가 없어 빠졌다. 이은상은 조중현(1969)의 시조집 『자정의 지구』(현대문학사)의 '머리말'에서 "내가 금강산 시조 108수를 발표한 것이 1930년! 그때 내 나이 28세요, 조중현님의 나이는 25세였다."라 적고 있어, 금강산시 108수를 '발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

이다. 단위 장소로서는 다른 어떤 경승도 미치지 어려울 많은 시적 체험의 자리인 셈이다. 조선조 한시에서 보여준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겠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다르다. 작품량과는 달리 많은 시인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금강산시를 남긴 사람이 모두 54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전문 문필 활동을 한 바 있어 문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들은 넓게 잡아 29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작품량 또한 몇 사람에게 치우쳐 있다.¹⁰⁾ 이은상이 41편으로 가장 많고, 김태오가 23편, 이광수가 21편, 김희규가 18편, 정인보가 15편에 이른다. 전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쓴 모두 162편 가운데서 118편을 5명의 시인이 독차지했다. 17% 밖에 되지 않는 시인들이 73%나 되는 금강산시를 내놓고 있어, 시인과 작품의 편중현상이 크다.

유형으로 볼 때 시조 갈래에 월등하게 많은 작품이 치우쳤다. 자유시 꼴을 따른 것은 63편에 지니지 않는다. 학생들의 교지에 실렸던 시조 95편을 빼버린 203편 속에서 따지더라도 137편, 곧 67%가 시조작품이다. 이미 전문 문단에서는 자유시로 시의 형태가 자동화되었던 시기에 상당히 치우친 현상이다. 금강산시는 보수적이고 관습적인 유형인 시조를 주도 형식으로 끌어 들이고 있어 그것이 담아내고 있을 장소 상상력의 관습적 발상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214편에 이르는 작품이 금강산 탐승 노정을 좇은 것으로 짐작되는 연작시조 형태를

나, 실물을 찾을 수 없었다. 노산시조집에 실린 41편을 장으로 다시 나누어 보아도 90장에 머문다. 불가에 깊이 몸담은 바 있는 조종현과의 인연을 강조하다 일으킨 착각인 듯하다.

- 10) 이 시기 동안 금강산시를 1편 이상 발표한 사람은 유·무명 시인과 학생, 일반인을 모두어 54명이다. 그 가운데서 전문 문단에 나서서 활동한 바 있는 이들의 이름과 작품 수를 들어 보이면, 이은상(41편), 김태오(23편), 이광수(21편), 김희규(18편), 정인보(15편), 김동환(4편), 정지용(4편), 임학수(4편), 이병기(3편), 안자산(3편), 김창제(3편), 박종화(3편), 신영철(2편), 박두진(2편), 노자영(1편), 최남선(1편), 한용운(1편), 박용철(1편), 장정심(1편), 신채호(1편), 유도순(1편), 김달진(2편), 조운(1편), 윤영춘(1편), 김상원(1편), 심훈(1편), 신불출(1편), 주요한(1편), 정회준(1편) 등과 같이 29명 162편이다. 금강산시를 발표한 54명 가운데서 반수 남짓이 무명문인이었거나 학생이었던 셈이다. 뒤에 전문 문인으로 활동했던 박노갑과 김비로도 일찍이 학생 신분으로 금강산시를 남겼으나 이 통계에서는 뺐다.

따르고 있다. 근대시 속에서 금강산은 양으로는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으나, 당대 많은 시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며, 시조라는 보수적인 양식에 치우친 까닭에 다양하고도 활발한 체험이나 정서를 보여주지 못한 처음부터 어려웠던 셈이다.

실제로 금강산시 창작에 부쩍 열을 올렸던 이광수나, 이은상, 김태오, 김희규는 부왜(附倭)문학을 했거나, 부왜지식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예사로 볼일이 아니다. 그들이 지냈을 세계상이 금강산에 대한 장소감 표현이나 인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을 것은 분명한 까닭이다. 근대 금강산시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두루 이해하는 데 이런 사실이 한 실마리를 마련해 줌직하다.

그렇다면 크게 보아 금강산시의 창작 동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첫째, 오래도록 한사에서 되풀이해 온 문학 관습의 영향이다. 금강산이 모름지기 살아 한 번은 탐승에 오를 만한 절경으로 떠받들을 받아온 것은 근대시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유가나 불가와 같은 종교적 경계는 물론, 반상·빈부와 같은 세속의 경계와도 관계가 깊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하니 거듭 이어졌을 금강산 탐승 경험의 전통이 꾸준히 근대 금강산시를 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셈이다.

둘째, 수학여행과 같이 학교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금강산 탐승 경험이다. 97편, 곧 32%에 이르는 많은 작품을 학생이나 교사들이 남기고 있음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적지 않은 비용에다 여러 날에 걸치는 금강산 탐승에 오를 수 있었던 겨레 구성원들은 나라잃은시대에도 부유한 소수였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학여행 장소로 금강산을 택해 오를 수 있었던 학생이나 교사들이 태반이었을 것이다.¹¹⁾ 그들은 금강산 탐승의 노정을 좇아 자신의 경험을 즐겨시로 담아내 놓았다.

셋째, 1920년대 이른바 국민문학파의 활동과 그를 뒤이은 상고적인 문화계 분위기도 근대 금강산시 창작의 주요 동인으로 보인다. 나라잃은시기 새로운 서양 문물이나 왜풍에 맞서 조선혼 찾기, 또는 조선 겨레의 자랑거리 찾기에

11) 나라잃은시기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제도 안에서 수학여행의 장소를 주로 어디로 삼았고, 어떻게 오갔는가에 대해서 두루 살펴 놓은 글은 찾을 수 없다. 많은 학교지나 개인의 자서전·회고기와 같은 글들을 뒤적거려 보아야 할 일이다. 나라 바깥으로는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왜국 동경이, 나라 안에서는 금강산이 가장 잦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힘을 기울였던 국민문학과 문학인들에게 금강산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대표 경관이었음직하다.¹²⁾ 이 점은 금강산시를 내놓은 시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른바 국민문학과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최남선, 이광수, 이은상은 물론, 이병기, 박종화와 같은 이가 그들이다.

물론 근대 금강산시의 창작 동인은 개인의 취향과 관심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 본 이러한 동인들이 그 바닥에서 큰 흐름을 잡아 주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강산시들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형상화에 이르지 못한 점도 이러한 창작 동인들이 지닌 개량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성싶다.

3. 비로봉을 바라보는 세 눈길

비로봉은 금강산 여러 봉우리 가운데서 주봉이다. 비로봉은 가까이 영랑봉, 장군봉, 월출봉과 같이 높은 여러 봉우리들을 싸안으며 금강산의 중심 경관을 이룬다. 내외금강뿐 아니라, 해금강까지 한 눈에 드는 이 곳으로 오르는 주된 길은 내금강의 내강·장안에서 시작하여 백운대를 거쳐거나, 외금강의 온정에서 시작해 구성동을 거쳐게 된다.

그리하여 외금강의 옥류동·구룡대를 따라 비로봉에 오른 뒤, 은사다리금사다리를 거쳐 묘길상·만폭동·장안사로 내려서거나, 거꾸로 오르내리는 길이 금강산 탐승의 주요 노선이 되어 왔다. 금강산의 경물이나 경관을 노래한 시인

12) 이른바 1920년대 국민문학과와 활동은 기미만세의거 뒤에 드높아갔던 민족주의의 기운과 우리의식이라는 시대 분위기를 받아들임과 아울러, 새롭고도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계급문학에 대해 기성 문단이 지녔을 당혹감의 한 표현이며, 문화 주도권을 오로지 하고자 했던 대응 전략이라는 성격을 띤다(박태일, 1987). 그들이 이루었던 일은 전통의 발굴과 조선혼이 깃든 우리 것 찾기로 줄일 수 있겠다. 문학 쪽에서 볼 때 그것은 역사소설 창작과 우리의 가장 오랜 관습 갈래인 시조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그들에게 금강산은 더 없이 좋은 조선의 대표 경관이며 글감이었을 것이다. 식민자 왜국의 자랑거리였던 단가 형태와 부자산 경관에 맞서 조선의 대표적인 관습 갈래인 단시조에다 조선의 대표 절경인 금강산은 잘 어울리는 짝이었던 셈이다.

들이 너나 없이 비로봉을 즐겨 다루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비로봉을 노래한 작품들 가운데서 몇 편을 건주어 금강산에 대한 장소 상상력의 틀거리를 알아본다.

東海의 잔물결이
헤어보면 얼말는지,

萬二千峯 저마다의
萬二千씩 신기로움,

萬二千 서로엮힌數
겨워본다하리오.

- 최남선(1926)의 <비로봉에서> 가운데서

『백팔번뇌』의 2부에 실린 작품이다. 2부에다 최남선은 ‘조선국토순례의 축문으로 쓴 36수’라 적고 있어, 그가 굳이 금강산을 다룬 까닭을 짐작하게 한다. 이미 『金剛巡禮』를 내어놓은 바 있는 그에게 금강산은 ‘조선국토’ 가운데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던 셈이다. 그런 만큼 금강산에 대한 개별 체험이나 독특한 깨달음을 좇기보다는 틀에 박힌 생각을 되풀이했다. “동해의 잔물결”이 보여줄 조화로움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만이천봉”이 엮어 낼 ‘신기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바다와 산이 어울려 이루어내는 빼어난 금강산 경관에 대한 막연한 장소감을 되풀이하는 데 머물렀다.

거룩한 山
神祕한 雲霧의 帳幕속에
검붉은 불스길이 오른다
내가 두팔을 들고
하늘을 우렐러 창생을 염할때에
바람이 웨치여 불어와
흰 옷자락을 날린다
아아 天地의 主宰여!

- 이광수(1926), <新禱 - 금강산비로봉에서> 가운데서.

탁- 열려진 백점의 성천지!
발아랜,

오호, 구름바다 동해바다,
또다시 끝모를 구름바다
함함도 하오시오
太古寂도 하오시오

- 박종화(1946), <毘盧峯> 가운데서.

이광수와 박종화의 작품 또한 막연한 감흥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최남선의 작품과 다를 바 없다. “거룩하고” “신비한” 금강산이 “천지의 주재”라는 추상적인 상찬이나, 금강산이 “백겁의 성천지”며 “태고적”한 곳이라는 감흥은 금강산에 대한 일반인의 막연한 통념, 곧 거룩하고 신비로운 절경이라는 장소감에서 한 치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담장이
물 들고,

다람쥐 꼬리
술이 짙다.

山脈우의
가을스길-

이마바르히
해도 향그롭어

지팡이
자진 마집

흰들이
우뚝다.

白樺 훌훌
허울 벗고

꽃 옆에 자고
이는 구름,

바람에
아시우다.

-정지용(1941)의 <毘盧峯>.

장수산과 금강산 체험을 중심으로, 그것을 고전 품격의 산수시 감각으로 살려내면서 산의 공간에 탐닉했던 정지용의 『백록담』 시 가운데 하나다. 비로봉 높은 '가을스길'을 오르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경관을 날카로운 묘사와 절제된 숨길로 아홉 도막에 늘어 담았다. 그러면서 세 도막을 한 매듭으로 묶어 시상이 모두 세 매듭을 이루도록 했다. '가을스길'을 거쳐, '흰들'에 이른 뒤, 산마루 자작나무숲 사이에서 '바람' 소리를 듣는 말할이의 움직임을 따랐다. 앞선 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성과 표현의 구체성을 얻고 있다.

1

급한 바람과 구름에 불려 올라왔다. 靑廬峯!…… 쉼- 쉼- 막 치 불어 올리는 바람과 구름에, 나는 작고, 헉 헉 느끼어만 진다.

나를 둘러싼 자옥한 구름, 우러러도, 우러러도, 어디 푸른 하늘 하나 안 보인다.

2

장작불 뽕게 타는 茶店안 마즌 편 유리창을 딱! 총알같이 받고 와 떨어지는 것이 있다. 매에게 쫓겨드는 죄그만 산새! …… 바르르르 몸을 뒹다. 얼른 나는 산새를 안었다. 찌이찌이 간신히 운다. 사르르 눈을 감는다. 무섭고 아픔에, 떨며 발짝이는 죄그만 가슴,……

나는 입술을 모아, 주우 주우 새소리를 지어 얼러도 보고, 후-후- 입바람을 내어, 쫓지 밀을 붙여주고 하였다.…… 눈을 뜬다. … 살아난다. …… 또 락 또락 바라작댄다. ! 아조 다시 살아났다.

3

새를 안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저 흐리어 있는 하늘. 푸른 하늘은 아니라도 오! 날려라. 발돋움 하여 나는 하늘로 새를 치뜨렸다. 짹짹 울고간다. 보이지 않는다.

- 박두진(1949)의 <靑廬峯-금강산 2> 가운데서.

박두진에 이르러 금강산은 완전히 구체적인 개별 체험의 장소로 드러난다. 비로봉 전망대의 '茶店' 안밖에서 시인이 겪었을 법한 일과 느낌을 빠른 숨길로 나눠 담았다. “매에게 쫓겨” “마즌 편 유리창을 딱! 총알같이 받고” 떨어진 “죄그만 산새”를 보고, 그 새를 간신히 되살려 ‘안고’ ‘밖으로’ 나가 “흐리어 있는 하늘”로 날려보내는 놀라움과 기쁨이 그것이다. 시인은 비로봉이 삶과 죽음의

맞서는 긴장된 자리, 또는 삶을 가로막는 힘과 그를 벗어나 해방에 이르는 감격의 자리일 수 있음을 “죄그만 새”를 이음매로 삼아 내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지용이 비로봉을 두고 마련한 풍물시적 객관 묘사는 남다른 시적 통제력이 없었어야 쉬 이르기 어려운 경지다. 박두진이 구체적인 개별 체험을 이음매로 금강산 탐승에 새로운 생동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보기는 흔치 않다. 우리 근대 금강산시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니 지레 위축되어 금강산에 대한 관습적인 상상을 거듭하거나, 주견 없이 영탄과 상찬을 앞세우며 전성으로 경물을 들먹거리다 마는 시가 대중을 이룬다. 금강산 경승에 압도 당하지 않으면서 개성을 갖춘 새롭고도 구체적인 경관 인식이나, 나날살이에서 겪는 느낌과 생각이 골고루 녹아든 독특한 체험 시로 나아갈 길은 막혀 있는 듯하다. 금강산에 대한 다양한 장소 상상력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4. 금강산시의 표현과 정서

이 자리에서는 근대 금강산시의 표현 특성과 정서의 문제를 짚고자 한다.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금강산시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과 독특함이 들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처음으로 조운의 작품을 들 만하다.

사람이 몇 生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劫이나 轉化해야 금강에 물이 되나!
금강에 물이 되나!

샘도 江도 바다도 말고 玉流 水簾 眞珠潭과 萬瀑洞 다 고만 두고 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 풀끓에 이슬 되어 구슬구슬 맺혔다가 連珠八潭
함께 흘러

九龍淵 千尺絶涯에 한번 굴러 보느냐.

- 조 운(1947)의 <九龍瀑布>.

이 작품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표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많은 금강산시가 그렇듯 시조 양식을 따랐으나, 남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장시조로 나아간 점이 그 하나다.¹³⁾ 아마도 금강산 구룡폭포가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흥취를 드러내는 데에 단순한 단시조 가락으로는 모자람을 느낀 듯하다. 그러하니 물줄기가 거침없이 흘러내리듯 빠른 장시조 장단을 빌어와 “샘도江도 바다”에다 “玉流水簾 眞珠潭과 萬瀑洞”으로, 다시 “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 풀밭에 이슬”로 말을 이어 없으며 표현에 생동감을 더했다.

둘째, 뛰어난 불교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금강산시들이 불교에 끈을 댄 생각이나 느낌을 들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금강산 둘레에 남아 있는 옛 건물이나 집자리가 거의 모두 불교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문헌에 이름이 오르내린 절집만 들어도 백팔십에 이른다. 불교의 세례를 받은 주요 경승이 한 둘에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불교적 연상을 끌어들이면서도 자신의 금강산 탐승 경험을 단순한 유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표현이 범상치 않다.

외금강의 옥류동 “連珠八潭”을 흘러 흘러 떨어지는 “九龍瀑布”는 여러 십에 이르는 금강산 폭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진다. 게다가 개성 대흥산의 박연폭포, 설악산 대송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삼대폭포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높다. 시인은 구룡폭포가 빔어내는 장관에 대한 아낌없는 경탄을 “몇 생을” 닦고 “몇劫을 轉化해야” 이를 수 있는 인연의 어려움이라는 시간감각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劫”으로까지 나아간 표현이 과장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놀라운 흥취를 제대로 담아내는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微風아 나래 달으라

사슴아 숨어라

노-피 별조각 구르는 시내 우에서-

13)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시조창이라는 노래시 전통에서 근대 문자시 전통의 시조로 옮겨온 뒤, 술하게 색어진 국권회복기 계몽시조나,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 시조부흥활동과 맞물려 색어진 많은 서정시조들은 한결같이 장시조의 전통을 버리고, 틀에 박힌 단시조의 전통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조운의 작품은 양장시조니 뭐니 둘러대면서 왜풍의 정형시 양식을 기웃거렸던 이은상과는 길을 달리 한다.

오, 미끄러운 허리 빛나는 어깨!
뽀로통 내민 가슴 저 좁그러운 살!

曲線 엿보이고 파-란 靜脈도 비치는
그 얇고 가벼운 絲를
꿈인가?……꿈인가?
헛 헛 헛 버서 던졌네.

五月의 薔薇도 오히려 낮붉힐
실 한올 머물었으리
이 꽃다운 青春!

-임학수(1938)의 <上八潭古事>.

상팔담은 외금강 구룡동의 구룡대 골짜기에 겹겹으로 이어져 있는 여덟의 큰 소 가운데서 가장 윗골에 있는 소다. 그리고 상팔담은 이른바 '나뭇군과 선녀' 전설로 드날려진 곳이다. 임학수는 그러한 옛이야기를 시의 바탕에 두었던 탓에 굳이 '古事'라 이름 붙였다. 그러므로 말할이가 "사슴아 숨어라" 한 뒤, 상팔담에서 "헛 헛 헛" 옷을 벗어버린 채 머물고 있을 선녀를 "꿈인가?……꿈인가?" 하며 상상하는 일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러나 시인은 이에 머물지 않고 한 번 더 시상을 끌어 올려서 상팔담 맑은 경관을 선녀의 몸매요 살결로 유추하도록 이끌었다. "五月의" 상팔담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꽃다운 青春!"이라 찬탄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일찌감치 그가 몸 적셨던 서양 낭만주의 시의 분위기가 느껴져 우리시다운 맛이 덜하긴 하지만, 옛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금강산 상팔담 풍광에 새로운 장소감을 더하고 있어 울림 큰 공간을 만들고 있다.

「목」 넘어 올라오자 급히도는 천봉만봉(千峯萬峯)
「잉어」 등 「지느레미」 펄펄할사 중향성(衆香城)을
산(山)굼를 모다산것을 이제본줄 아노라
-정인보(1948)의 <毘盧峯> 가운데서.

정인보의 <毘盧峯>은 금강산 탐승을 빌미로 시인 나름의 개성적인 표현 능력을 한껏 들내고 있는 경우다. 중향성은 비로봉 아래에 있는 중향봉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 수억 만 향불을 태워 그 연기가 실안개처럼 줄을 그으며 자욱

하여 성벽을 둘러친 듯 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길게 내리 뻗친 하나의 뿔줄기로서, 흰 돌이 술하게 머리를 쳐들고 겹겹으로 성벽처럼 절묘한 장관을 이룬 데서 중향성은 그 웅장함을 더한다(전영률과 여럿, 1989 ; 330) 한다.

시인은 비로봉에서 내려다보는 “천봉만봉”의 “중향성” 경관을 커다란 잉어의 등지느러미로 읽어내고 있다. 잉어가 모여 “펄펄” 살아 움직이듯이 봉우리들을 “굼뜰” 모여 사는 것으로 깨닫는 놀라운 상상력이다. 그 연상을 따르면 곧 비로자나 부처의 법신이자 땅인 비로봉과 그 아래 중향성으로 몰려 앉은 봉우리들은 부처의 자비를 입고자 몰려든 잉어, 곧 물중생인 셈이다. 구름 안개 짙은 금강산 경관에 대한 독특하고도 활기찬 상상력을 잘 보여준 경우다.

앞에서 살핀 작품들은 금강산시 가운데서도 그나마 표현력이 뛰어나거나, 새로운 시격을 얻은 것들이다. 이런 작품들을 들어 내놓고 보면 거의 모든 시들이 탐승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물이나 경관에 대한 단조로운 회고나 상찬을 되풀이하는 데 머물고 있다. 남다른 장소감을 창조적으로 지각하고 표현하는 힘이 모자랐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금강산시가 품어내는 정서 또한 색다른 맛이 드물다.

- 1)벌집 같이 모난 돌이 植대처럼 뻗어 올라
蒼空이 구녕날듯 비바람 쏟아질듯
激浪에 돌뿌리 꺾여질까 소름 오싹 돋더라.
-심훈(1950)의 <叢石亭> 가운데서.

- 2)반남아 안개 덮여 숲 속에 가렸으니
그대는 명성 같이 사시로 새튼 빛에
인간에 별유천지니 에던이 아니었나든가?
-(줄임)-
만물의 주인공이 걸작품 예 두시고
이 땅의 보배 되게 만인이 황래하니
에던이 어디었나 하다 나는 연가 하였소
-장정심(1939)의 <금강산> 가운데서.

- 3)발본냥 뎌은아직 먼곳에 잇전마는
마음은 옛제벌서 金剛중에 들었구나
萬二千 區區層層이 날이온듯 하여라
-이은상(1932)의 <金剛을 바라보며> 가운데서.

해금강은 삼일포에서 동해로 약 4km 되는 곳에 자리한 해금강리에서부터 남강하구의 대봉섬을 거쳐 화진포에 이르는 바다 명승이다. 말 그대로 바다의 금강이어서, 물의 위아래 할 것 없이 오묘한 자연미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그 가운데서 총석정은 통천의 총석과 금란굴 등을 비롯해, 금강산 북부지역의 동해 기슭을 이룬다. 바닷가에 수천 수만으로 솟은 모난 돌기둥과 바위벼랑, 그리고 그 속의 동굴들이 신비한 전설과 어울려 이채를 띄는 빼어난 풍광이다.

여로부터 관동팔경의 첫자리에 놓이는 곳이기도 했던 이러한 총석정을 두고 심훈은 “소름 오싹” 든다 하여, 그로 말미암은 경탄의 강도를 제대로 옮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 뛰어난 금강산 경승은 어느 한 곳이라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곳에서 그 앞에 선 이들에게 사람살이의 하찮음을 일깨우기에 모자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은 놀라움과 비애감까지 “소름 오싹”하다는 표현 속에 담고자 한 셈이다.

이와 달리 장정심은 2)에서 독실했던 기독교인답게 금강산 구역이 “만물의 주인공” 하나님이 만든 ‘절작품’, ‘보배’로서 이 곳이야말로 ‘에덴’ 낙원이 아닌가 했다. 금강산을 “인간에 별유천지”로 읽는 눈에는 예사 사람들과 달라진 바가 없으나, 시인이 지닌 종교적 바탕에 따라 미묘하게 바뀌어 가는 금강산시의 정감을 엿볼 수 있다.

3)은 이은상의 작품이다. 그는 모두 마흔한 편에 이르는 금강산시를 남겼다. 게다가 <장안사>, <금강에 살으리랴>와 같이 널리 노래로 드날려져 사랑받고 있는 작품까지 갖추고 있어 금강산시를 포괄하는 일이 있을라치면, 그의 작품은 앞자리를 다룰 만하다. 이 시는 그 가운데서 뛰어난 쪽에 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이은상의 금강산시들이 버릇처럼 보여주는 표현 정서, 곧 인간화된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금강산 골짜기의 갖가지 풍물이나 경관을 노래하는 경우에 이은상 시의 말할이는 그 대상에서 시정의 인간사를 떠올리거나, 인간사로 말미암아 얻을 법한 느낌을 투사하는 경우가 잦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깥 세상과 멀리 벗어난 듯한 “金剛중에” 훌쩍 이르렀으면서도 “몸은 아직 먼곳에 잇건마는”이라 한 데서 바깥 세상과 따로 떨어지지 않은 마음자리가 잘 드러난다. 게다가 “金剛중에” 들어선 뒤 처음 보았을 법한 “萬二千 區區層層” 경물이 모두 “낯익은듯” 하다 했으니, 별유천지로 금강산을 바라보는 다른 시인들과 잠시 갈라선다.

금강산 탐승은 하루하루의 나날살이와는 분명히 나뉘는 단절된 경험이자 행위였을 텐데, 이은상에게서는 그것이 나날살이와 연속된 일로 읽히고 있는 셈이다. 떠나버린 님을 떠올린다거나 금강산 경승이나 경물에 배어 있음직한 인물들을 회고하고 떠올리는 버릇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을 세 속의 한 자리로 친근하게 읽어내는 이러한 감각은 그 표현에 쉬 의인법을 끌어오도록 이끈다.

털끝만한 움직임
웃어보임 없으나

영원한 멜로디로
너는 흔들리우고

그윽한 웃음
네모습에서 풍기여난다.

걸친거없이
천연스러운 너.

- 박용철(1938)의 <萬瀑洞> 가운데서.

금강산의 경관이 높이 우러러보거나 찬탄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신비롭고도 절대적인 존재라는 틀에 박힌 감각에서 벗어나 있다. “만폭동”의 산수자연을 “걸친거없이 천연스러운 너”라 부르며 친근하게 바라보는 시인의 소박한 마음이 의인법을 빌어 잘 드러난다. 그렇다고 이은상이나 박용철의 금강산시가 울림 큰 체험을 엮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 작품에 이르면 금강산시는 이제 완전하게 다른 경계를 열어 나간다.

金剛山 좋다마라 丹楓만 피었더라
丹楓이 잎새 잎새 秋色만 자랑하더라
차라리 蒙古大沙漠에 大風을 반기리라
-신채호 선생(1946)의 <金剛山>.

금강산 좋다 해 금강산에 들렀으나, 풍악이란 이름에나 걸맞을 “丹楓”이 엮어내는 “잎새 잎새 秋色”만 짚어서 시인은 큰 흥취를 느끼지 못한다. 금강산을

두고 지레 감격하고 상찬할 마음이 앞서 있거나, 명승 금강산과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음 졸이고 있기 십상이었던 여느 시인들의 자세와 달리, 선생은 금강산 단풍이 그 무어 대수롭다 할 것인가고 불끈 되묻고 있다. 선생은 금강산 풍광에서 물러서 오히려 그와 마주 섰다. “차라리 蒙古大沙漠 大風을 반기리라” 한 시줄을 빌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줄은 다름 아니라 이제껏 왜인들이 관광한답시고 북새통을 이루었고, 뒤질세라 그 뒤를 따라 금강산에 들어 한때의 즐거움을 피하거나, “金剛山 좋다” 하며 한갓 되이 말을 회롱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나라잃은시기 너나 없이 우리 겨레가 겪었을 고통스럽고도 고된 삶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번성했던 왜로제국주의 관광자본과 그에 빌붙어 노니는 무리들에 대한 노여움과 꾸짖음이 은근하나 당당하게 무르녹았다.

이제 금강산은 빼어난 절경이요, 명승일 뿐 아니라, 신비스러운 영산이라는 틀에 박힌 장소 이미지에서 벗어날 자리가 마련된다. 오랜 겨레의 고된 삶자리로 금강산이 올라섰다. ‘金剛山’ ‘丹楓’자리의 ‘秋色’과 ‘蒙古’ ‘大沙漠’의 ‘大風’으로 단단하게 맞세워 둔 표현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다. 희귀한 본보기로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작품에 이르러 비로소 근대 금강산시에 대한 사회·역사적인 맥락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된다.

5. 마무리

우리 근대시 속에서 금강산은 옛 한시에서 보여주었던 전통과 마찬가지로 주요하고도 빈번한 문학적 원천이었다. 실제로건 상상으로건 전줄 데 없이 빼어난 신비로운 절경으로 알려진 탓에 금강산에 대한 묵은 시적 관습은 근대시 기에도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거기에는 이른바 국민문학파의 우리 것 찾거나 시조부흥활동, 학생들의 되풀이된 수학여행과 같은 일들이 근대 금강산시를 이어지게 한 주요 동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강산에 대한 장소 상상력은 많은 창작인들에게 두루 관심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나라잃은시기와 광복기에 이르기까지 298편에 이르는 작품을

시인·학생·일반인에 이르는 54명이 담아내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창조적인 경지에 이른 작품은 아주 드물다. 금강산이 신비로운 절경이며 우리러 불 풍광이라는 관습적·평균적 상상을 되풀이하거나, 최고조의 틀거리만을 거듭한다. 정지용이 보여준 절제된 묘사력이나, 박두전이 보여준 구체적인 개별 체험 쪽으로 따라선 작품은 찾을 수가 없다.

금강산시는 그 연원으로 말미암아 불교적 연상이나 옛이야기를 그 표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면서도 조운이 보여준 장시조 양식의 선택과 그에 걸맞는 활발한 상상력, 임학수의 울림 큰 표현공간, 개성적이고도 역동적인 정인보의 작품에서 근대 금강산시가 보여준 표현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 그 정서 또한 시인들의 지각 방식이나 마음자리에 따라 미묘한 분화가 엿보인다. 그러나 다채로움을 보여주지 못한 채 나날살이와 떨어져 얻게 된 과장된 상찬과 감흥으로 한결같다.

그런 가운데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금강산시는 여느 시인들과 다른 장소감을 보여 준다. 선생에게 있어 금강산은 빼어나고도 신비로운 경관, 이상공간이 아니라 그 곳 또한 우리 겨레의 고되고 육된 삶자리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금강산은 왜로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력과 관광자본이 침탈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그들의 낯선 말소리와 질펀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운, 굴욕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단재 선생에 이르러 다른 금강산시들이 가 닿을 수 없었던 사회·역사적 문맥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여느 금강산시의 경우,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장소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한 까닭이 금강산 경관이 지닌 압도적인 힘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일은 금강산시에 공을 들인 주요 시인들이 나라잃은시기 문화권력이 남달랐던 기성문인이었거나, 부왜문인 또는 부왜지식인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성싶다. 복고적인 시조 갈래에 치우친 점도 한 실마리가 됨직하다. 왜로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공간 침탈, 장소 지배 아래서 많은 돈과 여러 날이 걸리는 금강산 탐승과 그에 따른 시쓰기는 보수적·퇴영적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도 동기로 작용했던 셈이다.

금강산은 동족상잔의 1950년대를 거치고 분단이 깊어지면서 우리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반세기여 가깝도록 풍문으로만 자리하고 있었던 금강

산이 새로이 현실 역사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커다란 상업자본이 관광을 명분으로 이 일을 꾀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금강산시, 금강산문학 또한 심심찮게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금강산이 어떠한 장소 이미지로 거듭날지, 어떠한 지리적 상상력을 보여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실 속에서건 문학 속에서건, 장소 선택과 공간적 실천은 권력과 자본의 이념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도움글]

1차 자료와 그 출전은 붙임으로 대신함.

박은숙(1997), 『金剛山圖연구』, 일지사.

박태일(1987), '국민문학과의 시조부흥활동과 그 형성요인', 『논문집』 5집,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심경호(1998), '조선후기 문인의 동유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6집, 태학사.

이승묵(1998),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6집, 태학사.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지리』 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임선묵 엮음(1981), 『근대시조대전』, 흥성사.

전영률과 여럿(1989), 『금강산』, 실천문학사.

정인갑(1992), 『금강산』, 에스페로문고.

이극로와 여럿(1938), '자연으로 개발되는 금강산-금강산을 자원으로 개발해도 좋은가?', 『조광』 3월호. 조광사.

가동집태랑 엮음(1927), 『鮮滿公認旅行案内』. 조선여행안내사.

조선총독부철도국(1929), 『朝鮮旅行案内記』, 조선총독부.

Tuan, Yi Fu(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Humanistic Geograthy, David Ley and Marwyn. Samuels ed., Maaroufa Press.

成田碩內 엮음(1925), 『金剛小詩』, 구옥서점.

[붙임]

근대 금강산시 죽보기

- 1910~1950 -

1. 시집에 실린 작품

노자영(1925), <海金剛의 黃昏>, 『처녀의 화환』, 창문당서점, 자유시, 1편.

최남선(1926), <비로봉에서>, 『백팔번뇌』, 동광사, 시조, 1편.

이광수(1926), <祈禱>, <行路歎>, 『조선시인선집』(조태연 엮음), 조선통신중학관, 자유시 1편·시조1편, 2편.

한용운(1926), <금강산>, 『님의 침묵』, 회동서관, 자유시, 1편.

이은상(1932), 『노산시조집』, 한성도서주식회사, 연작시조, 41편.

[金剛行] <金剛을 바라보며>, <長安寺>, <梵鍾이 우는구야>, <萬川橋>, <業鏡臺>, <太子城>, <太子宮址>, <水簾洞>, <靈源洞 山鳥>, <拜石>, <鳴淵>, <弔忠魂>, <歎惺樓>, <三山局>, <梅月堂의 崖刻을 보고>, <萬瀑洞 八潭歌>, <常啼菩薩傳說歌>, <白雲臺로 오르며>, <백운대에 올라>, <衆香城 바라보며>, <毘盧峰(基1)>, <비로봉(기2)>, <비로봉(기3)>, <妙吉祥崖佛>, <內水站路中>, <七寶庵>, <隱仙臺>, <十二瀑>, <甘露水>, <映山池>, <玉流洞>, <九龍瀑>, <飛鳳瀑>, <太子墓>, <萬物草>, <玉女峰>, <舟中題>, <七星峯>, <夫婦岩>, <金剛에 살으리랏다>, <金剛歸路>.

김희규(1935), 『님의 心琴』, 한성도서주식회사, 연작시조, 18편.

[금강순례] <금강에 들어>, <옥녀봉>, <옥류동>, <구룡폭>, <만물상>, <장안사>, <명경대>, <영원사>, <혈성루>, <만폭동>, <마하연>, <비로봉>, <內霧在嶺>, <楡岾寺>, <閼殘嶺>, <해금강>, <叢石亭>, <금강을 보고>.

임학수(1938), 『팔도풍물시집』, 1948년 백민문화사 2판, 자유시, 4편.

<上八潭古事>, <해금강에서>, <천선대>, <총석정>.

장정심(1939), <금강산>, 『琴線』, 1957년 경천애인사 4판, 시조, 1편.

김태오(1939), 『초원』, 청색지사, 연작시조, 23편.

[금강순례], <금강순례>, <斷髮嶺>, <장안사>, <明鏡臺>, <望軍臺>, <鳴淵潭>, <三佛岩>, <正陽寺>, <팔담>, <普德窟>, <마하연>, <묘길상>, <유점사>, <비로봉>, <신라태자묘>, <九龍淵>, <비봉폭>, <옥류동>, <만물상>, <해금강>, <三日浦>, <총석정>, <金剛頌>.

박용철(1939), <만폭동>, 『박용철전집 1권』, 동광당서점, 자유시 1편.

김동환(1939), <마의태자묘>, <장안사의 노승>, 『해당화』, 대동아사, 자유시, 2편.

이병기(1939), <만폭동>, <총석정>, <迦葉峰>, 『가람시조집』, 문장사, 시조, 3편.

이광수(1940), 『춘원시가집』, 박문서관, 시조, 19편.

<만폭동에서>, <수미암 · 1>, <수미암 · 2>, <溫井嶺>, <普光庵>, <萬物草>, <도솔암>, <호랑아>, <만폭동 · 1>, <만폭동 · 2>, <石碑>, <산>, <바위>, <명경대>, <百塔洞>, <雲水宗積>, <外圓通>, <動石洞>, <혈성루>.

안자산(1940), <금강산 1>, <금강산 2>, <장안사>, 『시조시학』, 조광사, 시조, 3편.

정지용(1941), 『백록담』, 1946년 백양당 2판, 자유시, 4편.

<비로봉>, <九城洞>, <玉流洞>, <온정>.

박종화(1946), <비로봉> <내무재령>, <유점사>, 『청자부』, 고려문화사, 자유시, 3편.

이해월(1946), <금강산가>, 『아름다운 강산』(정태진 엮음), 신흥국어연구회, 단편 가사, 1편.

정희준(1946), <총석정>, 『아름다운 강산』(정태진 엮음), 신흥국어연구회, 자유시, 1편.

- 신채호(1946), <금강산>, 『아름다운 강산』(정태진 엮음), 신흥국어연구회, 시조, 1편.
- 유도순(1946), <금강산이 좋을씨고>, 『아름다운 강산』(정태진 엮음), 신흥국어연구회, 시조, 1편.
- 김익렬(1946), 『남종시조집』, 자가본, 장시조, 4편.
 <登金剛山 1>, <등금강산 2>, <毘盧峯曉天 1>, <비로봉효천 2>.
- 조 운(1947), <구룡폭포>, 『조운시조집』, 조선사, 장시조, 1편.
- 윤영춘(1948), <구룡폭포>, 『무화과』, 송문사, 자유시, 1편.
- 정인보(1948), 『달원시조』, 을유문화사, 연작시조, 15편.
 [금강산에서] (1)<만폭동>, (2)<매월당석각>, (3)<마하연암>, (4)<표훈사>, (5)<정양사>, (6)<昭光庵>, (7)<내수점>, (8)<曉雲洞, 유점사>, (9)<七寶菴>, (10)<四仙橋>, (11)<비로봉>, (12)<마의태자릉>, (13)<구룡연>, (14)<비봉폭>, (15)<옥류동>.
- 박두진(1949), <별-금강산 1>, <비로봉-금강산 2>, 『해』, 청만사, 자유시, 2편.
- 김상원(1949), <금강산>, 『백로』, 구고산장, 자유시, 1편.
- 심 훈(1950), <총석정>,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시조, 1편.

2. 교지에 실린 학생과 교사의 작품

- 강 매(1924), 『배재』 6호, 7월, 배재학생청년회, 연작시조, 11편.
 [금강산] <바위>, <물>, <돌>, <구룡연>, <만물초>, <은선대>, <무재령>, <한하계>, <천선대(1)>, <천선대(2)>, <천선대(3)>.
- 잡 천(1924), 『배재』 6호, 1924년 7월, 배재학생청년회, 연작시조, 42편.
 [금강산] <서빙고를 지나며>, <평강에서(1)>, <평강에서(2)>, <궁예>, <감로수>, <왕전>, <마의태자>, <文筆峯>, <금강문>, <양망대>, <비봉폭(1)>, <비봉폭(2)>, <홍군의재(구룡폭에서)>, <한하계>, <천선대에서>, <만폭동>, <사선국(1)>, <사선국(2)>, <양봉래 글씨를 보고>, <작명>, <보덕굴>, <혈성루(1)>, <혈성루(2)>, <표훈사에서(1)>, <표훈사에서(2)>.

<표훈사에서(3)>, <명경대(1)>, <명경대(2)>, <장군대 못 가면
서>, <비로봉을 지내면서(1)>, <비로봉을 지내면서(2)>, <내무
재령에서>, <은선대>, <고승당>, <삼일포>, <해금강에서(1)>,
<해금강에서(2)>, <雨中行>, <雜詠(2)>, <잡영(3)>, <잡영
(4)>, <표훈사에서>.

김요한(1933), <금강산을 넘어서>, 『배제』 15호, 3월, 배재학생청년회. 학생작
품, 시조, 1편

박노갑(1925), <금강산행>, 『취문』 3호, 12월, 취문고등보통학교 학예부, 학
생작품, 시조, 1편.

김비로(1931), 『승실』 12호, 12월, 승실전문학교, 학생작품, 연작시조, 20편.
[금강유곡] <금강행>, <단발령>, <입금강구>, <내금강 들어서
며>, <명경대>, <수렴동>, <태자성>, <동궁지>, <망군대>,
<만폭동 진주담>, <백하대>, <비로봉>, <금강백운송>, <십이
폭>, <유점사>, <한잔령 넘으면서>, <만물상>, <구룡연>, <해
금강>, <총석정>.

구철희(1935), <마의태자>, <비로봉>, <작별>, 『桂友』 15호, 7월, 중앙고등보
통학교 동창회, 시조, 3편.

김유상(1935), <금강을 넘고서>, 『桂友』 15호, 7월, 중앙고등보통학교 동창회,
학생작품, 시조, 1편.

조태남(1938), 『배화』 5호, 6월,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우회, 학생작품, 시조, 4편.
[금강산에서] <내금강>, <해금강>, <외금강>, <금강산을 탐승
하고>

정숙완(1934), 『배화』 6호,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우회, 학생작품, 연작시조,
7편.

[금강산을 보고서] <백운대에서>, <마하연의 밤>, <비로봉에
서>, <구룡폭을 보면서>, <진주담에서>, <만물상을 보면서>,
<금강산을 보고서>.

유경룡(1903), 『협실』 2호, 5월, 협성실업학교학생회, 학생작품, 연작시조, 3편.
[금강산] <해금강>, <만물상>, <구룡연>.

유기준(1938), 『보성』 4호, 3월,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작품, 연작시조, 2편.

[회상] <四, 雨中七十里>, <五. 叢石亭>.

3. 잡지에 실린 금강산시(뒷날 시집에 실린 작품은 제외)

김창제(1930), 『청년』 103호, 11월호, 자유시 2편, 시조 1편, 3편.

<長安寺의 밤>, <明鏡臺>(시조), <비로봉의 습겁>

한기악(1937), <金剛山에서>, 『중앙교우회보』 11호, 중앙대학교 졸업생 친목회, 자유시, 1편.

우이동인(1925), <금강산>, 『보성』 3호, 7월호, 자유시, 1편.

최창남(1930), <金剛山이 그리워>, 『신생』 23호, 9월호, 자유시, 1편.

신불출(1938), <金剛>, 『삼천리』 96호, 5월호, 시조, 1편.

이대용(1933), <산-金剛을>, 『신동아』 23호, 9월호, 자유시, 1편.

신영철(1934), <毘盧峯>, <麻衣太子陵>, 『학등』 12호, 12월호, 한성도서주식회사, 자유시, 2편.

현극야(1937), <금강단장>, 『조광』 9월호, 조광사, 자유시, 1편.

강산인(1940), <금강산>, 『조광』 92호, 6월호, 조광사, 자유시, 1편.

장영기(1935), <금강산의 물줄기>, 『창작』 1집, 11월, 창작사. 자유시, 1편.

주요한(1940), <金剛山火>, 『문장』, 10월호, 문장사, 시조, 1편.

4. 신문에 실린 금강산시

김규진(1919), <금강유람가>, 『매일신보』 12월 12일 - 1920년 1월 11일, 19회 연재, 근대가사, 1편.

신우생(1931), 『동아일보』 2월 4일 - 3월 11일, 18회 연재, 자유시, 25편

<옥류동>, <구룡연>, <팔담>, <만물상>, <지옥문들어가며>, <태자성>, <명연담>, <혈성루>, <봉래기국>, <수렴동>, <도솔암>, <망군대>, <망군대회고>, <진주담>, <보덕굴>, <선적암>, <법기봉>, <만폭동>, <돌무더야>, <금강수>, <중향성>, <삼일포>, <비로봉오르며>, <비로봉>, <금강산보고나서>.

김동환(1927), <해금강>, <총석정>, 『조선일보』, 11월 19일, 자유시, 2편.

김청파(1930), <금강산>, 『조선일보』, 10월 26일, 자유시, 1편.

김달진(1934), <온정리추억>, 『동아일보』, 9월 25일, 자유시, 1편.

_____(1935), <유점사 추억>, 『동아일보』, 5월 28일, 자유시, 1 편.

조태원(1939), <비로봉 정상>, 『동아일보』, 9월 29일, 시조, 학생작품, 1편.

윤계현(1939), <楓岳印象記>, 『동아일보』, 10월 11일, 자유시, 1편.